

## 이슈 브리핑

### ①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항공) 스페인, 국내 단거리 비행 금지 추진
- (바이오연료) 개트워 공항, HVO 활용해 디젤차 탄소 배출량 90% 저감
- (탄소배출) 유럽의회, 중소·중견기업에 GHG 배출량 측정시 2차 데이터 사용 허용

### ②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자율주행) Plus-Traton Group, 자율주행 트럭 상용 도입을 위한 협력
- (자율주행) Pony.ai, 록셈부르크 정부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MoU 체결
- (미래모빌리티) 日, 물류 인력 부족에 따라서 자율주행 지게차에 주목

### ③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CATL-BAIC-Xiaomi) 中 베이징 배터리 셀 공장 설립 계획
- (Aisin-Subaru) e-Axle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
- (Goodyear) 말레이시아 공장 폐쇄

##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### ◆ (항공) 스페인, 국내 단거리 비행 금지 추진

- 스페인 정부는 2050 기후 행동 계획에 따라 국내 단거리 비행을 제한할 계획으로, 철도로 2시간 반 이내 이동이 가능한 거리 내 비행 금지가 유력
  - \* 상기 내용은 '21년 처음 제안되었으며 '24.2월 연립 여당인 PSOE와 Sumar가 합의함에 따라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
- 이에 스페인은 프랑스에 이어 국내 단거리 비행을 금지하는 국가가 될 예정이며 정부는 개인 전용기 등을 제한하는 방침도 검토할 계획
  - \* 프랑스는 '23.5월 국내 단거리 비행 제한을 공식화하였으며(기준 상동)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선은 3개로 연간 국내 비행의 2.5%의 비중 차지
  - \*\*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, 국제 노선과 연계된 국내 연결편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  - ※ Euronews('24.2.23.) <https://www.euronews.com/green/2024/02/23/spains-plan-to-ban-domestic-flights-where-you-can-take-a-train-in-under-two-and-half-hours>

### ◆ (바이오연료) 개트워 공항, HVO 활용해 디젤차 탄소 배출량 90% 저감

- 英 개트워 공항은 공항 내 모든 디젤 차량\*의 연료를 수소화 식물성 오일(HVO)\*\*로 전환하여 해당 차량들의 탄소 배출량을 90%가량 감축했는데, 이는 연간 950톤의 탄소 저감에 해당
  - \* 총 300대로, 전체 차량 중 85%의 비중을 차지하며 소방·제설 차량 등이 포함
  - \*\* 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첨가한 바이오연료
- 공항은 관련 실증을 3개월간 진행한 결과 HVO 전환 후 차량의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으며, 이후 해당 차량 퇴역시 전기차를 대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
  - ※ TTW('24.2.27.) <https://www.travelandtourtourworld.com/news/article/gatwick-airport-opts-vehicle-emissions-by-90-with-vegetable-oil-swap/>

### ◆ (탄소배출) 유럽의회, 중소·중견기업에 GHG 배출량 측정시 2차 데이터 사용 허용

- 의회 산하 환경 및 교통위원회는 온실가스(GHG) 배출량 측정과 관련해 중소·중견기업(SME)에 2차 데이터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CountEmissions EU\*를 채택함
  - \* 운송시 배출되는 GHG 계산에 필요한 방법론 마련을 위한 이니셔티브로, 해당 방법론의 의무 사용을 규제하진 않으나 운송 과정 배출량을 측정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한 기업은 이니셔티브에 따른 하기 규정\*\* 등을 준수해야 함
  - \*\*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은 배출량 계산시 1차 데이터(실도로 측정값)를 우선 사용해야 하나 SME의 경우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설정값 등을 2차(간접)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
- 또한 의회는 기업이 자체 보유한 배출량 계산 도구가 상기 방법론과 부합할 경우 사용을 허용할 예정으로, 이를 통해 업계 내 공통된 방법론의 도입 및 활용을 장려할 계획
  - \* 관련하여 의회는 ISO 14083:2023에 따른 방법론 마련을 제안했는데, 해당 기준은 WTW(연료의 원료 생산부터 차량 운행까지의 과정 포함, 차량 생산 및 폐기 재활용은 제외)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계산법 설정
  - ※ IRU('24.3.5.) <https://www.iru.org/news-resources/newsroom/european-parliament-adopts-pragmatic-sme-friendly-ghg-reporting-measures>

◆ (자율주행) Plus-Traton Group, 자율주행 트럭 상용 도입을 위한 협력

- 미국 자율주행 트럭 기술 업체 Plus\*는 트럭 제조사 Traton Group(Scania, Man, Navistar)과 장기 협력을 발표하였으며, 양사는 Lv.4 자율주행 트럭 시범 상용 운영 이후, 대량 생산 및 글로벌 대규모 상용 배치 예정
  - \* 오픈 플랫폼 기반의 상용 트럭용 Lv.2 ADAS와 Lv.4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며, Bosch, Iveco, DM(독일 드렉스트어), DSV(덴마크 물류업체) 등과 파트너십 체결
- 현재 Plus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Traton Group의 Lv.4 자율주행 트럭은 안전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텍사스와 스웨덴에서 테스트 중임
  - \* Electrek('24.3.12.) <https://electrek.co/2024/03/12/commercial-brands-testing-level-4-autonomous-trucks-plus-partnership/>

◆ (자율주행) Pony.ai, 룩셈부르크 정부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MoU 체결

- 중국 자율주행 기술 업체 Pony.ai\*는 한국, 중동, 북아프리카\*\*까지 사업을 확장한데 이어, 최근 룩셈부르크와 MoU를 체결하여 유럽 시장에 진출
  - \* 중국 4개 도시에서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며, Toyota, SAIC, GAC Group 등의 완성차사와 파트너십 체결
  - \*\* '24.2월 한국 의류·IT 기업 GemVaxLink와 합법적인 설립 발표, '23.10월 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NEOM으로부터 1억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NEOM과 MENA(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)에 자율주행 서비스 계획 발표
- 이번 협력을 통해 Pony.ai는 룩셈부르크 지역 허브 구축 및 유럽 시장 맞춤 솔루션 개발 계획
  - \* Digitimes('24.3.13.) <https://www.digitimes.com/news/a20240313VL204/pony-ai-mou-luxembourg-av-china-saudi-arabia-south-korea.html>

◆ (미래모빌리티) 日, 물류 인력 부족에 따라서 자율주행 지게차에 주목

- Mitsubishi Logisnext는 최근 자율주행 지게차\* 문이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, 이는 일본에서 엄격한 초과근무 규정\*\* 시행 예고와, 지게차 운전자 수 감소 추세\*\*\*에 따른 것으로 보임
  - \* Nikkei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형 지게차는 200만엔, 공장 네트워크 기반시설 설치 비용 포함 최대 1,500만엔
  - \*\* '24.4.1.부터 화물차 운전자 초과근무가 연간 960시간으로 제한되면서, 일본 정부는 '30년 34%의 트럭 운송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. 이에 따라 물류 창고는 화물차 운전자가 대기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일해야함
  - \*\*\*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게차 면허 이수자는 '22년에 '08년 대비 22% 감소함
- Mitsubishi Logisnext의 자율주행 지게차는 제어실에서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물류 창고에 설치된 반사경을 통해 반사되는 레이저로 현재 위치 및 방해물을 감지하며, 동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된 지게차 개발을 목표로 함
  - \* 이외에 Toyota Industries는 트럭에서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자율주행 지게차를 개발 중이며, NEC는 지게차에 장착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하는 등 대기업들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나섬
  - \* Nikkei Asia('24.3.8.) <https://asia.nikkei.com/Business/Business-Spotlight/Japan-s-driver-shortages-spur-innovation-at-warehouses>

◆ (CATL-BAIC-Xiaomi) 中 베이징 배터리 셀 공장 설립 계획

- CATL, BAIC, Xiaomi Auto는 배터리 합작사 'Beijing Era New Energy Technology'를 설립하고, 베이징 배터리 셀 공장 건설에 공동 투자 계획 발표
  - \* 합작사 자본금은 10억 위안(1억 3,800만 달러)으로, CATL 51%, BAIC 39%, Xiaomi Auto 5%의 지분 보유
- 합작사는 리튬이온배터리, 동력 배터리,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개발·생산·판매 및 사후 서비스·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  - \* CarNewsChina('24.3.12.) <https://carnewschina.com/2024/03/12/baic-joins-hands-with-catl-and-xiaomi-auto-to-build-intelligent-battery-cell-manufacturing-plant/>

◆ (Aisin-Subaru) e-Axle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발표

- 일본 자동차 변속기 제조업체 Aisin과 Subaru는 차량 및 변속기 개발 전문성을 활용하여, '20년대 후반 생산 예정인 Subaru EV에 탑재될 e-Axle\*을 공동 개발 및 분담 생산 결정
  - \* BEV와 같이 전기모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패키징 한 것으로, 주로 기어박스, 모터, 인버터로 구성됨
- 양사는 고효율·경량화·소형화 콘셉트로 사용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e-Axle 개발을 목표하며, 전동화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최적의 부품 공급업체 및 생산 체계 연구 예정
  - \* Aisin('24.3.12.) <https://www.aisin.com/en/news/2024/006085.html>
  - Primes('24.3.12.) <https://primes.jp/main/html/rd/p/000000059.000112940.html>

◆ (Goodyear) 말레이시아 공장 폐쇄

- 미국 타이어 제조사 Goodyear Tire & Rubber는 1972년 개장한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주 사알람 공장을 '24.6.30. 폐쇄 계획 발표
  - \* 동사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(MIDA)은 공장 폐쇄로 50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
- 동사는 '23.11월 발표한 수익성 개선 계획 Goodyear Forward\*의 일환으로, '25년까지 10억 달러의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공장 폐쇄 결정했다고 밝힘
  - \* ①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총수익 20억 달러 초과 달성, '25년까지 ②연간 10억 달러 비용 절감, ③연간 3억 달러 운영이익 창출, ④영업이익률 5→10% 확대, ⑤순레버리지 2~2.5배 달성을 목표로함
  - \* Reuters('24.3.8.) 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tire-maker-goodyear-close-manufacturing-plant-malaysia-2024-03-08/>
  - Goodyear('23.11.15.) <https://corporate.goodyear.com/us/en/media/news/goodyear-announces-transformation-plan-goodyear-forward.html>